기획특집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❷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끌 저력'을 조명하기 위해 교수신문이 기획한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는 대학 내부의 집합적 노력, 유산의 역사성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 잠재성, 세계적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13편의 유산 가운데, 두번째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지면으로 초대해본다.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대학부설연구소로 출발한 대표적 지역 종합 연구소라는 가치가 돋보인다. 세계적 연구소를 향해 도약중인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본다.

아세아문제연구소, 학문, 한국 그리고 세계

한국 사회과학의 人才 産室 … 長期 硏究 지원해 사회발전에 기여



고 김준엽 총장(1920.8.26~2011.6.7)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디렉터다. 설립이후 제2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소의 문호개방과 연구능력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1957년 설립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이하 아연)가 끼친 학문적 영향은 한 대학과 한 분과학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1960~70년대 시기 동안에는 아연을 제외하고는 한국대학의 역사를, 나아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역사를 서술할 수 없을 만큼 아연의 활동은 개척적이고 독보적이며 종합적이었다. 대학연구(소)활동의 거의 전 분야, 이를테면 연구, 자료수집, 출판과 같은 중심적인 학문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연구의제설정, 인재초빙과 구성, 국제협력, 학술회의, 모금, 학문후속세대양성, 사회적 영향 … 과 같은 연구조직의 존재이유 전 영역에 걸쳐 그러했다.

먼저, 근대화, 공산주의, 동아시아, 통일, 북한 문제를 포함해 아연이 당시에 설정한 연구의제들은 한국사회에 가장 적확한 것들이었고, 아연의 연구수준은 당대 한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들 주제는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주제들이었다는 점에서 대학연구소 활동의 한 전범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는 아연이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최초로 본격 연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學緣 아닌 학문적 우수성으로 전문가 구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중심적 연구의제를 고려대라는 단일 대학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역량,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구자들로 구성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때 아연을 통해 해당 주제의 연구에 착수한 연구자들은 훗날 대부분 그 분야의 한국 최고 전문가로 성장했다. 학연을 넘어 공정하게 선정하되 무엇보다 학문적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선택기준이었다. 아연은, 학맥과 교내 권력관계에 매몰된 오늘의 방식과는 반대로, 학문세대를 어떻게 양성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고려대를 넘어 보편적으로 초빙된 연구자들은 마치 인재산실, 담론산실로 불릴 만큼 대성공이었기 때문이다.

> 권력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을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연의 성공요인이자 한국 학문에 대한 최고의 기여였다.

또한 아연은 세계와의 학술 교류의 창이었다. 아연이 교류한 해외학자들의 명단을 일별하면 그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아연의 학술회의는 단순한 한 대학 내 학술회의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과 세계의 학문이 실질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접점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연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나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출판, 자료집 편찬을 통해 끊임 없이 연구의제의 사회적 확산을 시도해 이 부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연의 주요 학술회의는 거의 빠짐없이 상세히 보도가 되곤 했다. 아연이 편집하고 정리해 출판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은, 자료 입수가 비교적 용이한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필수적일 만큼 긴요하고 유용하다. 물론 자체의 독자적 전문도서관을 갖추어 해당 주제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꼭 들르게 만든 점 역시 중요했다.

어떻게 이런 활동과 역할이 가능했을까. 첫째는 학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다. 당시 아연의 리더십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학문, 학자,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통찰하고 있었다. 특히 학과의 벽을 넘어 학제적으로 대학 연구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거듭 숙고한 뒤 비전과 방향을 설정했다. 따라서 학문과 사회의 관계 및 학제적 연구수행에 관한한 아연은 한국 대학연구소의 모범의 하나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었다.

둘째는 최고성과 보편성의 추구였다. 연구비 배분, 연구진 및 필진 구성, 주제할당에 있어 아연은 항상 다른 학교 학자들에게도 상당 비율을 맡겼다. 대학교원들의 급료가 아주 낮고, 외부 연구비 지원제도 자체가 거의 없던 당시 시점에서,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연구비를 학내를 넘어 배정한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 수준' 자체를 지향한다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하나 깨닫게 된다. 아연이 해외에서 수주한 막대한 연구비를 고려대 내부에서 나누어 독식했다면 아연의 성취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저런 조직이기주의, 동종교배, 연줄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대학사회의 인사, 조직, 연구비 배분 풍토에서 아연의 경로는 거의 예외였고, 또 그러한 예외적 보편주의가 성공을 가져온 요인이 아니었나 싶다.

재정적 안정성과 성격 역시 중요했다. 아연의 모금규모는 한 대학연구소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고, 한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성취에 가까웠다. 거의 모든 연구기금은 해외재단으로부터의 모금이었으니 더욱 놀라웠다. 이 점은 연구의 자율성, 독자성, 장기구상으로 연결됐다. 당시에 아연이 독자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다수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계속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바로 해외로부터의 막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에 상대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낳은 '아연'의 영예

끝으로는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연의 창립 및 성공의 주축은 장기간 아연의 책임을 맡았던 김준엽 소장이었다. 한 연구기관의 장기적 안정 및 발전과 관련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지속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도 아연은 예외였다. 대학연구소들이 교내 권력관계에 따른 리더십의 빠른 교체로 인해, 일관된 구상에 바탕한 장기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정부와 기업과 학교가 요구하는 단기적 연구결과의 대량생산 및 단기생산에 매달리고 있는 풍토에서 이는 귀감이 될 만한 사례였다.

아연이 설정하고 진행한 연구의제들은 한국의 학문과 사회에 크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권력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을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연의 성공요인이자 한국 학문에 대한 최고의 기여였다. 필자를 포함해 오늘의 학자들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인간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지혜의 水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박명림 연세대 · 정치학

고려대에서 박사를 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하버드 옌칭연구소 합동연구학자를 역임했다.지은 책으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다음 국가를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아연의 역대 소장들



고려대 아연의 역대 소장들. 왼쪽부터 1대 이상은, 3대 한승주, 4대 홍승직, 5대 박병춘, 6대 최상룡, 7대 최장집, 그리고 현재 소장인 이내영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어제와 오늘

공산권 연구로 출범 … 세계적 수준의 동북아지역 연구 허브 지향

1957년 한국 최초의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출발한 아세아문제연구소(이하 아연)는 1950~60년대 국내 최고의 공산권연구기관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 후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한국 연구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아시아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1958년에 창간한 계간 학술지 〈아세아연구〉를 비롯, 많은 연구총서와 자료총서를 간행해왔고, 매년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엘리트 육성이라는 좁은 영역에 역할을 한정짓고 있을 때, 고려대는 대학이 먼저 장기적 지식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연을 설립했다. 아연의 활발한 활동에 자극을 받은 한국의 각 대학은 대학부설 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아연의 조직 체계와 운영방식은 이후 탄생한 대학부설 연구소의 원형이 됐다.

그렇다면, 이 아연이라는 거대한 연구공동체를 탄생시킨 주역은 누굴까. 지난 6월 타계한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이다. 일본 유학시절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탈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한국근대사의 거목. 이범석 장군의 부관을 지내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그는 정계로 진출하지 않고 학자의 길을 선택했다.

이내영 아연 소장(고려대 · 정치외교학과)은 "김준엽 총장은 해방된 조국에서 동북아를 연구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꾀하는 일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 그 일을 당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신 셈이다"라고 말한다. 거목은 바람을 피할 수 없듯, 정치권으로부터의 입각 유혹이 끊이질 않았다. 총리직 제의만 4~5회 있었지만, 그때마다 유혹을 거절했다. "선비로 남겠다는 일관된 의지셨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과 교류해야 하고, 한국사회에 학문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셨다. 공산권 연구 학자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등과 교류하면서 북한 · 중국 공산주의 운동 연구의 가능성을 예견했다. 이걸 통해 아연을 세계적인 연구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구 공동체를 표방한 아연의 시기별 연구 경향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보폭을 맞춰왔다. 공산권 연구 주력 시기(1957~1978년) → 한국사회 연구 주력 시기(1979~1993년) → 동아시아 사회 문화 연구 주력 시기(1994년~2008) →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주력 시기(2008년~현재)로,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의제를 발굴 제시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아연은 2008년 11월 인문한국(HK) 해외지역사업 연구소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전임연구인력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동북아 지역연구자들 간의 학술교류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 중국 · 일본의 주요 연구소 · 연구자들과 지역정보 ·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북아 종합지역연구소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설립 방향을 제시한 김준엽 총장이 실천했던 '문호 개방과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김준엽 총장이 소장으로 있던 1970년대 장안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은 고려대 아연을 거쳐갈 수 있었다. 이홍구, 김경동, 이상우, 홍원탁 등 학자들과 김재익 당시 경제기획원 국장도 정책 연구에 참여했다. 이내영 소장은 "아연이 고려대 안의 연구소에 머문다면, 세계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없다. 연구소에 고려대 출신만 들어오고, 고대출신끼리 연구하는 걸 넘어서야 아연이 살 수 있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 무슨 동북아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소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다. ARI 팰로우쉽을 비롯, 고려대와 면식이 없는 젊은 연구자들을 초빙했다.



아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김준엽 소장과 함께 담은 기념사진.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준엽 소장이다. (1970년 6월).

그렇다면 아연은 이제 어디로 갈까. 동북아지역에 관한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 지향하겠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하지만, 뒷받침돼야 할 게 있다. 이내영 소장은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하다보면, 연구 방향이 아연의 고유한 정체성과 분리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소장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적 연구에 지속적으로 아연의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대학 연구소들이 재정적 문제로 부침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현실이기에, 그의 해법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김준엽 총장은 전두환 정권때 학생들과 제자 두둔하다 총장직에서 물러나셔야 했다. 한동안 아연에도 나오지 못하셨다. 그때 사회과학원을 설립, 중국내 한국학 연구소 10곳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한중 수교 이전의 일이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 주요 대학에는 한국학 관련 연구소가 개설돼 있고, 한국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산동대와 함께 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감회가 깊었다"라고 이내영 소장은 말한다. 17년전 박사학위를 갓 마치고 김준엽 총장을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중국내 한국학연구소들에 영문편지를 썼던 일이, 마침내 결실이 돼 돌아온 것이다. "아연이 어디로 가야할 지 모두들 고민이 많다. 김준엽 총장께서 하시던 말이 있다. '나는 역사학자로 역사의 신을 믿는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자'라는 말이다." 과연 아연은 어디로 갈까. 세계의 연구소로 나아가는 과제는 아연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욱 대학과 사회, 국가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주요활동

● 주요 연구총서 및 자료총서 간행

- 『구한국외교문서』 22권, 『구한국외교문서 부속문서』 8권
이 문서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구한국 외교 관계 문서를 정리한 것으로 개항 이후 한국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외교 · 영토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 『공산권총서』 27권
한국 및 아시아 공산권에 대한 분석연구와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로 연구총서 22권, 자료총서 5권을 출간했다.

- 『한국연구 문헌 해제』
아연은 한국학의 세계화에도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학자와 학생들을 위해 1945년부터 1962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단행본과 논문을 수록한 영문판 『한국연구문헌해제』 2권과 한국의 문화유산과 창조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고전에 대한 영문판 해제서인 『한국고전해제』 1권 등 3권을 출간했다.

- 『한국개발연구총서』 32권
민주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당시 아연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지원으로 비교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경로에 대한 연구에 주력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32권에 달하는 '한국개발연구총서'를 완간했다.

- 『동아시아연구총서』13권, 『중국연구총서』17권, 『민주주의총서』17권 2001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SK텔레콤 (주)과 SK(주)로부터 총 12억 원의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내놓은 성과물이다.

● 국내 ·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연은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와 미래지향적 연구주제를 통해 한국 내 연구를 선도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개최된 대표적인 국제학술회의만을 소개하겠다.

- 「아세아에 있어서의 근대화문제」 국제학술회의
본 연구소에서 1965년 6월말부터 7월초에 걸쳐 개최한 이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였다.

-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문제」 국제 학술세미나
1966년 6월에 열린 이 세미나는 한국에서 열린 공산주의에 관한 최초의 국제 학술 세미나였다.

- 「한국의 전통과 변천」 국제학술회의
이 회의는 한미학자들 간에 한국학에 대한 공동연구의 첫 시도로써 미국의 SSRC-ACLS 합동 한국연구위원회와의 공동주최로 1969년 9월초에 서울에서 한미학자 30여명의 참가하여 열렸다.

- 「한 · 일 양국의 지적 교류」 국제학술회의
아연과 일본 국제교류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세계의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한일양국이 아세아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총 10회 열렸다. 1996년 이후 한일공동연구포럼으로 이어졌다.

- Searching for a New East Asian Order: Historical Reflections and Current Issues
2010년 3월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서 화합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의 모색이라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동아시아 담론의 핵심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됐다. 그 구체적인 논의의 틀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 논의의 핵심쟁점들로 구성됐다. 또한 아연 HK사업단의 지향점 중 하나인 다학제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접근도 함께 했다.